고양시 성사청소년문화의집 교육기부동아리 '범블비'

즐거운 소통으로 아이들 꿈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

지난해 12월, 고양시청소년재단 성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기부 동아리 '범블비'가 '2020년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 우수 사례 공모전'에 참가해 여성가족부 장관상과 고양시장상을 수상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양시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교육환경 제공해왔기 때문이다. 즐거운 소통을 하며 아이들의 정서적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멘토들을 만나보았다.

글. 김수은 사진. 김성재

(좌측부터) 신혜인, 양아영, 박지민, 이손민

Q. 청소년 교육기부 동아리 '범블비'의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이손민 2019년 만들어진 교육기부 동아리 '범블비'는 '꽃과 꽃을 연결하고 꿀을 저장하는 벌'이라는 의미로 청소년과 청소년,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그동안 노을학교와 주교청소년자유공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멘토링을 진행해왔는데, 국어, 영어, 수학, 코딩 등 여러 학습 교과목을 멘토와 멘티 청소년을 일대일로 매칭해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과 학습 노하우를 전달했어요. 주말에는 상추와 토마토를 작은 화분에 심는 텃밭 만들기를 비롯해 고양시의 자랑인 꽃을 활용한 꽃청 만들기, 4차산업 활용기술을 체험하는 IoT 수업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어요.

신혜인 지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어요. 밴드 어플을 활용해 선행학습 영상을 토대로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멘티들에게 과제를 내주면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잘 모르는 학습 내용을 질문해요. 멘토들은 동영상으로 그에 대한 설명과 오답 정리, 선행학습 내용을 정리해 멘티의 학습도와 성향에 맞춰 공유하고요.

Q. 지난해 '2020년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가해 여성가족부 장관상과 고양시장상을 수상했는데 그때의 소감을 들려주세요.

이손민 대면 활동 대신 영상과 SNS 등을 활용해 일대일로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하고 비대면 체험 활동을 기획해 진행한 점이 고양시장상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요인이 된 것 같아요. 멘토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신 조정현 센터장님과 최형광·전수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Q. '범블비'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말해주세요.

박지민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꾸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어려웠어요. 고민하던 중 손민이의 추천으로 범블비 활동을 하게 됐어요.

이손민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교육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다른 교육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지만, 한 곳에서 꾸준한 활동을 하고 싶어서 관련 정보를 찾다가 노을학교를 알게 되어 범블비 활동을 시작했어요.

신혜인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육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서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노을학교를 알게 됐어요. 졸업할 때까지 범블비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요.

양아영 혜인이의 권유로 범블비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재미있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하게 할 계획이에요.

Q. 교육기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박지민 수학 문제 풀기를 어려워하는 등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멘티들에게 기초 개념을 알려주고 풀이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었어요. 처음에는 진전이 없었지만, 애정을 갖고 반복해 가르쳐주니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도 스스로 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Q.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박지민 코로나19 상황에 즉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비대면 활동으로 효율적인 전환을 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서 멘토와 멘티,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는데 처음엔 매끄럽지 못했어요. 인내심을 갖고 동영상 자료 업데이트 과정을 개선하는 등 하나씩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지금은 즐거운 소통을 해나가고 있어요.

Q. 앞으로 활동 계획이 궁금해요.

양아영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멘토링을 하는 등 그동안 비대면 활동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역사탐험, 문학기행 등 멘토들의 전공과 멘티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에요. 학습에 도움을 받았던 멘티가 성장해 멘토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도 20명의 멘토들이 그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나가 고양시 청소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싶어요.

꽃청 만들기 활동